

정부 노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도·농지역의 차이비교

An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al Elderly
Employment Service Delivery System on Successful Aging
: Comparis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이 지 영** · 성 도 경***

Lee, Ji-Young · Sung, Do-Kyeong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모형 및 조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의 생산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과성이 성공적 노화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노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과성 및 일자리사업 만족도,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과성 및 일자리사업 만족도, 일자리참

* 본 논문은 이지영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조교수(주저자)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교신저자)

논문 접수일: 2014. 10. 29, 심사기간(1, 2차): 2014. 10. 29 ~ 2015. 1. 5, 게재확정일: 2015. 1. 5

여 노인의 성공적 노화간 영향관계에 있어서 도시 및 농촌지역 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 즉, 생산적 활동은 성공적 노화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고독감과 소외감, 그리고 민간노동시장에서의 배제감이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활동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되고 치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농촌형모형과 도시형모형으로 차별화시켜 노인일자리사업 성과를 최적화 시키는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 주제어: 노인고용서비스, 서비스전달체계 효과성, 성공적 노화, 도·농지역간 비교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related variables toward the governmental elderly employment service delivery system on successful aging by defining EWP as a productive activities of the aged. In order to create a suitable job aptitude, this study is designed to compare urban areas with rural areas locating in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and paths that influenced successful aging were analysed, which showed that the elderly employment service delivery system characteristics of EWP participants had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successful aging through the service satisfaction. And there was a wide difference between urban area participants with rural area participants. Second, positive attitude to the activities in old age is confirmed to be an important factor to help successful aging. The level of successful aging was higher in the rural area than in the urban area. The result may indicate that the participation in EWP can provide the opportunity of successful aging in conditions with lower income, insufficient opportunities of work and social activities, and scarce social welfare infrastructure in rural area. EWP as a productive activity should be socially encouraged to become a representative activity which leads a new culture for old age.

□ Keywords: Governmental Elderly Employment Service, Effectiveness of Service Delivery System, Successful Aging, Comparis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I. 서론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향후 우리사회에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복지국가들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취업과 사회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일자리 창출을 매개로 한 노인의 사회참여촉진정책은 성공적 노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노인의 탈빈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하춘광 외, 2009: 410).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꾸준히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사회 노인복지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 노인에게 있어 일자리는 삶에 큰 보람과 만족을 주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욕구 뿐만 아니라 여가활용, 대인관계 증진 등 일반적으로 생계를 위한 노동과는 다른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¹⁾ 특히 사회복지 재정 측면에서 보면 노인복지 재정 팽창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예산 확보상태는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노인복지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인들로 하여금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인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양희욱, 2004; 임춘식 외, 2008).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전체 사업 로드맵²⁾에 비추어 볼 때 2014년은 노인일자리사업 정착기로 초기의 제약요인들을 극복하고 보편적·욕구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다짐으로써 한 단계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 11년차를 맞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시행 초기와 비교했을 때 근무조건이나 환경 등의 변

1)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79세의 과반수이상인 60.1%가 장래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선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다음은 '일하는 즐거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전체 사업 로드맵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초기에 해당하는 제1기에는 사업의 제도적 정착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충, 그리고 일자리의 다양화 및 양적 팽창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2기 사업기간은 내실화기로서 욕구맞춤형 및 1기 사업에서 나타난 제약요인의 극복을 통해 사업을 재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향후 2013년부터 2017년 제3기를 정착기로 규정하고 보편적·욕구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체제의 완비 및 사례관리와 경력개발 프로그램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2018년 이후에는 발전기로 베이비붐세대 노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일자리의 사회적 보편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남기철 외, 2008).

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형화 된 채 운영되고 있어 노인들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복지 욕구나 수요 파악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천편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진옥 외, 2009; 이환범, 2010).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보장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의 선정, 수혜자격 요건의 설정, 서비스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김영한 외, 2008: 12).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처럼 한정된 자원으로 노인계층에게 의도한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서비스전달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이현주, 2007: 3).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상자와 급여의 확대, 재원의 확보에 우선순위를 둔 나머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5). 또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와 정책은 두 집단을 차별화 하지 않고 전체를 포괄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적절한 서비스전달체계의 구비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선행연구(홍현방, 2005; 손능수·허만용, 2006; 강지애, 2007, 김재중, 2007; 김영한 외, 2008) 결과를 토대로 노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과성 및 서비스만족도,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를 분절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의 인과구조 관계로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노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과성 및 서비스만족도,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각 변수들 간의 영향력 정도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에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보고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노인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이론적 논의

1. 노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과성

사회복지행정은 추상적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Skidmore, 1990: 3). 사회복지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보장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의 선정, 수혜자격 요건의 설정, 서비스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김순양 외, 2003; 김영한 외, 2008).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은 시대적, 사회문화적, 이념 및 복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학자들에 의하여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왔다. Gates(1980), Gilbert & Terrell(2002)은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정의하였으며, Friedlander & Apte(2002)는 기관간의 관계성과 그들의 원조과정을 사회복지전달체계라고 하였다. 이러한 전달체계를 기관과 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를 통틀어 공급자와 수급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 전달망이라고 정의하였다.

결국, 사회복지전달체계란 어떻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최성재·남기민, 2008: 199).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전달체계의 설계에는 서비스전달 단위들 간의 연결, 전달단위의 지리적 위치, 서비스 전달을 담당할 인력의 자질과 능력 등에 관한 선택이 포함된다.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ates(1980)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 평가요인으로 전문성, 접근용이성, 통합성, 책임성, 적절성, 포괄성, 지속성, 공평성 등을 제시하였고, Friedlander & Apte(2002)는 공평성, 접근성, 포괄성, 지속성, 적절성 등을 전달체계의 주요 측정요인으로 제시하였다. Gilbert & Terrell(1997, 2002)의 경우에는 다양한 개별 복지서비스는 통합되어야 한다는 통합성과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속성,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는 접근용이성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과 활동에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성 등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과성 측정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박병일(2002)은 포괄성, 연속성, 통합성, 접근용이성, 적절성, 전문성, 책임성 등을, 이인재(2003)는 전문성,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신속성, 공정성, 일관성, 접근성, 서비스연계 등을 복지전달체계의 평가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태교(2005)는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전달체계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요인으로 기능분담의 체계성, 전문성, 접근용이성, 통합성, 책임성, 적절성, 포괄성, 대상자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 최성재·남기민(2008)은 전문성, 적절성, 포괄성, 지속성, 통합성, 평등성, 책임성, 접근용이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서재호(2008) 역시 통합성, 접근용이성, 적절성, 전문성 등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측정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전달체계 효과성 측정요인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요인들은 대체로 노인고용서비스를 포함한 복지서비스 일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각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달라질 수 있다.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서비스가 통합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아울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며, 서비스 전달의 전문성까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통합성, 책임성, 적절성, 전문성, 접근용이성 등을 통해 노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사회복지전달체계 효과성 측정요인

연구자	측정요인
Gilbert&Terrell(1997)	통합성, 지속성, 접근용이성, 책임성
Friedlander&Apte(2002)	공평성, 접근가능성, 적절성, 연속성, 포괄성
박병일(2002)	책임성, 통합성, 노력성, 연속성, 전문성, 포괄성, 접근용이성, 적절성
이인재(2003)	전문성,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신속성, 접근성, 공정성, 일관성, 서비스 연계
이태교(2005)	기능분담의 체계성, 전문성, 접근용이성, 통합성, 책임성, 적절성, 포괄성, 대상자 특성
임병우(2007)	적합성, 노력성, 통합성, 접근성, 지속성, 전문성
서재호(2008)	통합성, 접근용이성, 적절성, 전문성
이규환·이용돈(2008)	통일성, 책임성, 적절성, 전문성, 포괄성, 접근성, 지속성
최성재·남기민(2008)	전문성, 적절성, 포괄성, 지속성, 통합성, 평등성, 책임성, 접근용이성
이진(2009)	통합성, 전문성, 포괄성, 적절성, 지속성, 책임성, 접근용이성
홍인정(2010)	통합성, 접근용이성, 적절성, 전문성
이정순(2010)	전문성, 통합성, 책임성, 평등성, 적절성, 포괄성, 지속성, 접근용이성

2.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

만족(Satisfaction)이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성취, 인정, 보상 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감정 및 가치체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나타낸다. 유민봉(1997)은 만족을 직무 자체 내지는 직무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대하여 얼마나 흡족하게, 또는 우호적으로 느끼고 있는지의 마음 상태를 말한다고 하였으며, 신유근(2005)은 만족을 행동이나 활동이 아닌 느낌이나 감정적 개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봄으로써 구성원이 일에 대한 가치를 달성하고 촉진하는 것으로써 그의 직무에 대한 평가에서 얻어지는 즐거운 감정적 상태라고 하였다. Locke(1995)에 따르면 만족이란 정서적 반응이므로 그 개념을 내부과정에서만 발견되거나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서 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일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평가한 결과로부터 얻게 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오늘날 로크의 정의는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만족이란 조직 구성원 각 개인의 직무 자체 또는 주위의 환경과 관련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가치, 그리고 태도나 신념 등의 수준이나 차원에 따라 느끼는 만족의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를 노년기에 경험하는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 즉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의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 동안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지표를 살펴 보면, 김경희(2007)는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결과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이 참여하지 않은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급여의 수준이 욕구에 비해 낮다고 조사되었고 사업 참여기간 또한 짧아 참여자의 생활주기와 욕구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황인옥(2007)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태도 측면에서 서비스 내용이 적절하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담당자의 업무 수행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희(2008)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서비스 유형 특성요인에 따른 만족도, 이용 관련 요인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기관 관련 특성요인에 따른 만족도, 직원관련 특성요인에 따른 만족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김선영(2009)의 연구에서는 현재 주어진 업무의 과중과 질, 근무시간, 임금, 일의 횟수 및 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김혜진(2009)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일이 많을수록, 담당자의 업무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의 측정지표로 서비스 종류, 서비스 과정,

근무환경, 인간관계 측면 등으로 범주화하여 연구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유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3. 성공적 노화

1) 성공적 노화의 개념

우리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한 서구에서는 노인이라는 사회적 특수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왔고 성공적 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노인 자신이 건강하게 잘 늙어가는 것을 위해 노인 개인은 물론 가정과 지역 사회, 국가가 함께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다(Fisher, 1995). Rowe & Kahn(1998)은 성공적 노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공적으로 노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생애과업은 무엇인가, 성공적으로 노화 할 수 있도록 미국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의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미국 내 7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인지적 기능, 생산적 활동 등의 5가지 영역을 측정하여 이들 간의 영향력 및 관련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공적 노화란 위험도가 낮은 질병과 질병 관련 장애의 부재 상태이며 수준 높은 정신과 신체 기능을 가지고 삶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들도 초기에는 성공적 노화를 단순한 질병과 무능력의 회피로만 인식하였으나, 연구가 진행 될수록 그 개념을 확장시켜 신체적, 인지적 기능의 유지와 더불어 사회적 생산적 활동의 참여를 첨가시켜 다차원적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성공적 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아직 통일된 개념정의나 측정도구가 없다. 홍현방(2005)은 성공적 노화란 과거와 현재를 수용하고 가까이 닥친 죽음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삶의 의미나 목적의식을 잃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심리적인 발달과정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질병 없이 사회관계를 유지하며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김미혜 외(2005)는 성공적인 노화란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 과거와 현재를 수용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심리적인 발달과정으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상의 질병 없이 가족관계유지 및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김경호·김지훈(2009) 역시 성공적 노화를 건전한 생활습관과 질병과 장애 및 위험요소 없이 건강함으로써 신체적, 인지적 기능 및 심리사회적 특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성공적인 노화를 정의하고자 했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성은, 노화는 단순하게 측정 할 수 없고, 결과가 아닌 계속적인 발달의 과정이며, 성공적인 노화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가 아닌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노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잘 유지하고, 기능수준을 보완·상향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

성공적 노화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통해 성공적 노화를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요소들을 밝히려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서구에서는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가장 먼저 관심을 집중하다가 점차 심리적 특성으로, 그 다음은 사회적 관계 및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으로 폭 넓게 시도되고 있다(Ardelt, 1995; Fisher, 1995; Rowe & Kahn, 1998; Crosnoe & Elder, 2002). Ardelt(1995)는 성공적 노화는 인지적, 정서적 요소들로 결합된 지혜에서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Fisher(1995)는 성공적인 노화의 특성으로 자율, 환경의 조절, 개인의 성장, 자아수용, 목표의식과 같은 5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Rowe & Kahn(1998)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질병과 장애가 없는 것, 정신적·신체적 기능 유지, 적극적인 인생 참여, 인생도전에 대한 적응이라고 하였으며, Mitchell(2002)은 성공적 노화를 신체적 요인과, 심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강조하였다. Kanning & Schlicht(2008) 역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생물학적 요소, 심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서구사회의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구성차원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성공적 노화 개념과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 서구적 가치에 근거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정의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적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구성차원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강인(2003)은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 신체적 건강, 개인성장,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가족지향, 경제적 안정의 6개 요소를 제시하였다. 특히 가족지향의 요소는 서구사회와 달리 우리나라 노인들이 성공적 노화에 관하여 보다 더 가족관계 중심적인 지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미혜 외(2004)의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복 많은 삶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은 부부, 자식, 친구, 여가, 주거, 재산, 건강, 마음 및 죽음의 9가지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성혜영·조희선(2005)의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다양한 생산적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김동배(2008)는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성공적 노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심층면접과 포커스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자율적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수용 그리고 타인수용 등 6가지 요소를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4. 노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과성, 일자리사업 만족도,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 연구

노인에게 '일'이란 소득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적인 생산 활동을 통한 자기실현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며 노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유지 등과 같은 다양한 이득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한 만족도는 경제적인 도움은 물론 노인들의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성공적 노화를 보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하춘광·김효순, 2009: 41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와 서비스만족도 관련 이론으로는 활동이론과 역할이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역할이론은 노년기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역할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적절한 지위와 역할 부여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고 보고 있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에게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활동이론은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과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이론이다(오현숙, 2003; 홍금자, 2009). 노인은 자발적으로 완전히 사회적 관계를 끊을 때까지 적절한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생활의 질,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는데 은퇴와 같은 인위적인 사회제도를 통해 강제로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고립감, 무력감으로 인하여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쇠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잔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인의 활동을 증가시켜 주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박금분, 2008; 강신옥, 2009). 따라서 노년기에도 가능한 한 많은 사회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활동이론은 노인의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는 성공적 노화 및 삶의 질을 결정짓는 직접적·매개적 변수로 밝혀지면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경희, 2007; 주은선·백정미, 2007; 민소영, 2009). 노인들은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하여 노인 스스로 경제력을 가지고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고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하게 되고 자아실현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아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서비스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서비스전달체계의 평가요인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김순양 외, 2003: 5). 이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제공자와 전달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수혜자의 행태와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서비스전달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된 전달체계의 평가요인 속에는 전달체계 그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 등에 대한 내용도 거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전달체계의 효과성 측정요인에는 서비스만족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인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대체로 노인고용서비스를 포함한 복지서비스 일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각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의 영역과 평가지표를 적절하게 재구성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공적 노화를 모토로 하여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변수들을 발견하고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삶을 개선시킬 방안들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다양하게 진행해 왔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던 신체적 건강, 금전적 보상 등과 같은 기초육구 충족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육구충족에 연구의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요소, 심리적 요소 등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을 강조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및 조사설계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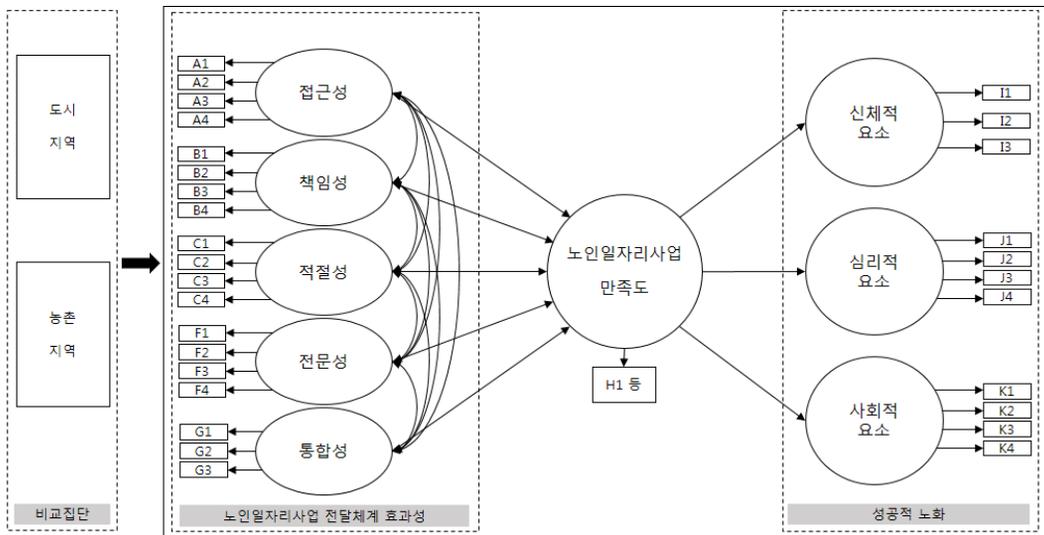
본 연구는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적절한 서비스전달체계의 구비여부가 사업의 성과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 및 성공적 노화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모색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노인일자리사업 효과성 증진노력은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일자리참여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제고에 영향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높은 만족도 수준은 일자리참여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형성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과성과 일자리사업 만족도

간의 관계,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과성과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 노인일자사업 만족도와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를 분절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의 인과구조 관계로 파악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변수들 간의 영향력 정도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사회복지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고객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통합성, 전문성, 적절성, 접근성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을 보다 강조하여 성공적 노화 관련 요소로 신체적 요소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소(자아존중감, 적극적 사고, 성취감, 타인의 입장 수용 여부)와 사회적 요소(사회적지지, 사회활동 참여 정도, 사회적 관계망)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측정항목의 작성 및 조작화

1)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과성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통합성, 전문성, 적절성, 접근성, 책임성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통합성의 원칙은 주로 공적인 전달조직에 적용되는데,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능과 조직이 한 곳에 통합되어 수급자가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합성을 다양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업무수행 시 관계기관과 관계자들 간의 협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Gilbert & Specht, 2002; 이태수, 2005; 서재호, 2008; 최성재 외, 2004; 장세철 외, 2009).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① 관계기관과의 정기적인 교류 ② 관계기관 간의 업무연계 및 조정 ③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공유 등의 지표를 통해 통합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성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수혜자의 욕구에 적합하고 서비스목적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Gates, 1980; Gilbert & Terrell, 2002; 최성재 외, 2004; 이태교, 2005; 김상균 외, 2008; 이종복 외, 2008; 정광열, 2009). 책임성의 확보방안으로는 서비스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만족스럽고 불편한 사항을 호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① 서비스목적에 맞는 서비스 제공 ② 적절한 사후관리 ③ 수혜자의 의견수렴 ④ 공무원 업무수행의 적극성 등의 지표를 통해 책임성을 측정한다.

적절성의 원칙은 양과 질,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간이 복지대상자의 욕구충족과 서비스의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 충실했느냐와 관계가 있다(조성신, 2004; 이태교, 2005; 정광열,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절성을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간이 수혜자의 욕구충족과 서비스 목표 달성에 충분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① 서비스 제공 양의 적절성 ② 서비스 제공 절차의 적절성 ③ 서비스 제공 기간의 적절성 ④ 적합한 서비스의 선택 기회 등의 지표를 통해 적절성을 측정한다.

전문성의 원칙이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복지서비스는 수혜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이에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의 심리적, 신체적 특성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비스전달에 있어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최성재 외, 2008: 105).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의 원칙을 전문적인 사회복지 전달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여 유지할 수 있고 업무수행에 이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① 전문인력의 충분성

②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공무원의 전문역량 수준) ③ 현장업무에 대한 이해정도 ④ 문제해결 능력 등의 지표를 통해 전문성을 측정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기에 용이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접근용이성을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편리한 곳에서,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주요한 장애요인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결여 또는 부족, 지리적 장애(원거리 또는 교통의 불편), 심리적 장애(자신의 문제 노출에 대한 두려움, 수치감 등), 선정절차상의 장애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가능하면 제거하여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의 제공 장소에 쉽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이태교, 2005; 장동일, 2006; 임병우, 2007; 이규환 외, 2008).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① 주민 편의적인 위치 ② 근거리 ③ 이용서비스에 대한 원활한 정보획득 ④ 서비스 홍보 정도 등의 지표를 통해 접근용이성을 측정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

일반적으로 만족이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서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를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경험을 통해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의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노인인력개발원(2006), 강요한(2010), 박양숙(2012)이 제시한 서비스만족도 문항을 재구성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① 근무환경 만족 ② 업무내용 만족 ③ 급여 만족 ④ 참여기관의 운영 만족 ⑤ 담당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만족 등의 지표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를 측정한다.

3) 성공적 노화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질병이 없으며, 신체적·인지적으로 기능이 활발하고,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성공적 노화는 크게 신체적 요소, 심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신체적 건강은 삶의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의 차원으로 신체적인 독립을 유지하고 개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

건이다(Vaillant & Mukamal, 2001).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요소를 질병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신체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① 건강상태 ② 신체적 기능 ③ 독립적인 일상생활 여부 등의 지표를 통해 신체적 요소를 측정한다.

최근 국내외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객관적 건강상태보다 주관적 건강상태, 즉 심리적·정신적 건강이 노인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mith, 2001; Zeng & Vaupel, 2002; Borg et al., 2006; 김원배, 2009 이동호, 2010)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나 우울감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애련·채옥희, 2001; 손신영, 2006).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소를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① 자아존중감 ② 적극적 사고 ③ 성취감 ④ 타인의 입장 수용 여부 등의 지표를 통해 심리적 요소를 측정한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으로 사회적 요소 역시 중요하다. Rowe & Kahn(1999)은 경제적·비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와 용역을 산출하는 일체의 활동 즉, 노동활동, 자원봉사, 단체활동 등을 사회적 요소로 보았고, 김진욱(2006) 역시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범위를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가족을 보살피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비공식적 도움과 사회참여 활동을 포괄하는 사회적 생산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① 가족,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② 사회활동 참여정도 ③ 사회적 관계망 ④ 적극적 역할 수행 등의 지표를 통해 사회적 요소를 측정한다.

3. 자료수집 및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상북도 소재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및 대면접촉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상북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 및 교육복지형 참여노인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4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공익형 및 교육복지형의 참여자가 많은 지자체 및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³⁾

3) 경상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노인의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복지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북도 각 지역의 인구, 산업구조, 노령화 등을 기준으로 23개 시군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도시형에는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가 포함될 수 있으며, 농촌형에는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은 구미시, 포항시를 표집대상으로 하였고, 농촌지역은 고령군, 예천군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구미시, 포항시, 고령군, 예천군 소재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지자체,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에게 사업단별 자조모임 및 간담회를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의뢰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설문지는 378부(회수율 94.5%)이다. 시의 경우 총 200부 중 188부(회수율 94.0%), 군의 경우 200부 중 190부(95.0%)를 회수하였다. 이 중에서 자료분석에 부적절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하고 총 360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남성 72명(39.7%), 여성 108명(60.3%)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남성 44명(24.4%), 여성 136명(75.6%)으로 여성이 많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60대 50명(27.4%), 70대 99명(55.3%), 80대 이상 31명(17.3%)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60대 31명(17.2%), 70대 125명(69.4%), 80대 이상 24명(13.3%)으로 70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학력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105명(58.7%), 중학교 졸업 58명(32.4%), 고등학교 졸업 이상 17명(8.9%)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143명(79.4%), 중학교 졸업 34명(18.9%), 고등학교 졸업 이상 3명(1.7%)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1년 미만 130명(72.0%), 1~2년 35명(19.6%), 2~3년 10명(5.6%), 3년 이상 5명(2.8%)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1년 미만 148명(82.2%), 1~2년 7명(3.9%), 2~3년 8명(4.4%), 3년 이상 17명(9.4%)으로 대부분이 1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분석결과

1. 분석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검증

분석모형에서 가설을 검증하려면 모형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정이 요구되는데 그 기준으로서 검정이나 다양한 지수가 사용된다. 검정으로서 카이제곱(χ^2)검정이 일반적이며, 전체 모형의 적합도 평가방법은 기초적합치(GFI), 조정적합치(AGFI), 평균오차제곱근(RMR), 근사오차제곱근(RESEA), 표준적합지수(NFI) 등이 사용된다. 이중 χ^2

은 모델적합도 평가에 이용되는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측정치이다(배병렬, 2009: 246-250). 그러나 x^2 값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 제안모델이 자료를 잘 적합시키는 좋은 모델일 가능성도 있으며, 모델가능의 조건들이 위배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x^2 값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적합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⁴⁾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x^2=4254.956$, $p=.000$, $GFI=0.916$, $AGFI=0.901$, $RMR=0.023$ 등으로 나타나 비교적 권장기준을 잘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x^2/df 는 자유도에 대한 x^2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본 분석모형의 경우 $x^2/df=3.752$ 로 확인되어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된다.⁵⁾

<표 4> 분석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검증

적합지수	최적모형 지수	수용기준	본 모형 적합지수
x^2	$p>0.5$	$p>0.05$	$x^2 = 4254.956$ $df = 1134$ $p = .000$ $x^2/df = 3.752$
GFI	1	0.9 이상	0.916
AGFI	1	0.9 이상	0.901
RMR	0	0.05 이하	0.023

4) GFI의 경우 보편적으로 권장되는 수용기준은 0.90 이상이며, 표본크기가 200 이상이면 제안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AGFI는 GFI를 확장시킨 것으로써 권장 수용기준 역시 0.90 이상이다. RMR은 수용기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적합도가 매우 좋은 모델이라면 0에 가깝고, 적합도가 나쁜 모델이라면 그 값은 커지게 된다. 주로 0.05 이하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 RESEA 값의 수용범위는 0.08 이하까지 분포하는 값들이 수용가능한 값으로 간주되고, 그 값이 0.10 보다 큰 경우에는 모형선택에 대해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배병렬, 2009: 250).

5) x^2/df 의 값이 1이하이면 모델이 과대적합되었음을 의미하며, 5이상이면 모델이 표본공분산행렬을 잘 적합시키지 않음을 의미한다(배병렬, 2009: 249).

2. 도시·농촌지역의 요인 간 영향관계 분석

1) 도시지역의 요인 간 영향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시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과성, 일자리사업 만족도, 성공적 노화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검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첫째, 도시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과성과 일자리사업 만족도간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책임성은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238, C.R.=2.87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성은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222, C.R.=3.02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은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907, C.R.=4.76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접근성은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부(-)의 영향(경로계수=-.696, C.R.=-5.13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과성과 성공적 노화간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책임성은 신체적 요소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238, C.R.=2.87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요소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638, C.R.=4.70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임성은 사회적 요소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850, C.R.=4.63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은 신체적 요소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907, C.R.=4.76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성은 심리적 요소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1.065, C.R.=3.37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성은 사회적 요소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1.750, C.R.=3.97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성은 신체적 요소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222, C.R.=3.02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절성은 심리적·사회적 요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은 신체적 요소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부(-)의 영향(경로계수=-.696, C.R.=-5.13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요소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부(-)의 영향(경로계수=-1.426, C.R.=-5.95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근성은 사회적 요소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부(-)의 영향(경로계수=-2.171, C.R.=-6.45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와 성공적 노화간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는 신체적 요소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

계수=.106, C.R.=3.381)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도시지역의 요인간 영향관계 분석

영향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유의확률
만족도	←	접근성	-.696	.135	-5.139	.000**
만족도	←	책임성	.238	.083	2.876	.004**
만족도	←	적절성	.222	.073	3.026	.002**
만족도	←	전문성	.907	.190	4.768	.000**
만족도	←	통합성	-.020	.139	-.141	.888
신체	←	접근성	-.696	.135	-5.139	.000**
신체	←	책임성	.238	.083	2.876	.004**
신체	←	적절성	.222	.073	3.026	.002**
신체	←	전문성	.907	.190	4.768	.000**
신체	←	통합성	-.020	.139	-.141	.888
심리	←	접근성	-1.426	.240	-5.951	.000**
사회	←	접근성	-2.171	.336	-6.453	.000**
심리	←	책임성	.638	.136	4.703	.000**
사회	←	책임성	.850	.183	4.633	.000**
사회	←	적절성	.101	.158	.638	.524
심리	←	적절성	.077	.120	.645	.519
심리	←	전문성	1.065	.316	3.375	.000**
심리	←	통합성	.093	.215	.434	.664
사회	←	통합성	-.077	.287	-.268	.789
사회	←	전문성	1.750	.440	3.977	.000**
심리	←	만족도	.021	.152	.141	.888
신체	←	만족도	.106	.086	3.381	.000**
사회	←	만족도	.353	.191	1.846	.065

** p<.01

2) 농촌지역의 요인간 영향관계 분석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과성, 일자리사업 만족도, 성공적 노화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과성과 일자리사업 만족도간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통합성은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133,

C.R.=4.60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성은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087, C.R.=2.06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과성과 성공적 노화간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성은 신체적 요소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133, C.R.=4.60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요소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208, C.R.=3.49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성은 사회적 요소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237, C.R.=2.81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요소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132, C.R.=2.03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은 심리적 요소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225, C.R.=3.19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요소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087, C.R.=2.06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성은 사회적 요소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168, C.R.=1.97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접근성 및 적절성은 성공적 노화(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와 성공적 노화간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는 신체적 요소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629, C.R.=5.052)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는 심리적 요소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399, C.R.=3.238)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는 사회적 요소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경로계수=.565, C.R.=3.551)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농촌지역의 요인간 영향관계 분석

영향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유의확률
만족도 ← 접근성	.040	.052	.770	.441
만족도 ← 책임성	.019	.039	.488	.625
만족도 ← 적절성	-.060	.066	-.908	.364
만족도 ← 전문성	.087	.042	2.067	.039*
만족도 ← 통합성	.133	.029	4.602	.000**
신체 ← 접근성	.040	.052	.770	.441
신체 ← 책임성	.019	.039	.488	.625
신체 ← 적절성	-.060	.066	-.908	.364
신체 ← 전문성	.087	.042	2.067	.039*

영향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유의확률
신체 ← 통합성	.133	.029	4.602	.000**
심리 ← 접근성	.005	.086	.056	.955
사회 ← 접근성	.034	.111	.305	.761
심리 ← 책임성	.132	.065	2.035	.042*
사회 ← 책임성	.237	.084	2.814	.005**
사회 ← 적절성	.086	.140	.613	.540
심리 ← 적절성	-.001	.109	-.007	.994
심리 ← 전문성	.225	.070	3.198	.001**
심리 ← 통합성	-.066	.045	-1.470	.141
사회 ← 통합성	.208	.059	3.495	.000**
사회 ← 전문성	.168	.088	1.975	.048*
신체 ← 만족도	.629	.125	5.052	.000**
심리 ← 만족도	.399	.123	3.238	.001**
사회 ← 만족도	.565	.159	3.551	.000**

* p<.05, ** p<.01

3. 도시·농촌지역 간 영향차이 분석

도시·농촌지역의 측정모형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적합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명되어 이하에서는 각 요인들의 도시·농촌지역 간 영향력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집단분석⁶⁾을 실시하였다. 각 경로에 대한 유의성 차이 검토는 par변수의 값을 통해 부문별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C.R.값이 1.96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미성을 보인 par변수를 살펴보고, 경로계수의 유의성 차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도시·농촌지역) 별 모수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도시·농촌 지역 간 전문성이 일자리사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농촌 지역 간 책임성이 심리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시·농촌 지역 간 책임성이 사회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6) 다중집단분석은 분석모형의 요인 간 인과적 관계의 형태에 있어서 집단 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그 구조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며, 일련의 경로계수들의 크기에 있어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물론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집단 간 분산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계수가 아닌 비표준화계수를 활용한다(문수백, 2009: 585-589).

로 나타났다. 넷째, 도시·농촌 지역 간 전문성이 심리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도시·농촌 지역 간 전문성이 사회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사업 만족도가 신체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b16_1과 b16_2이 만나는 모수 추정치가 4.849로써 도시·농촌 지역 간 일자리사업 만족도가 신체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집단의 대응별 모수간의 쌍대비교 분석

구 분	b4_1	b8_1	b9_1	b12_1	b15_1	b16_1
b4_2	-4.211	-3.883	-4.055	-3.073	-3.763	2.004
b8_2	-3.857	-3.367	-3.69	-2.897	-3.638	2.201
b9_2	-3.218	-2.509	-3.033	-2.534	-3.376	2.841
b12_2	-3.36	-2.7	-3.178	-2.597	-3.421	2.97
b15_2	-3.524	-2.905	-3.349	-2.738	-3.525	2.215
b16_2	-1.222	-0.049	-0.995	-1.285	-2.451	4.849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현 추세 속에서 충분히 일을 할 역량이 되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장점과 함께 노인의 정신건강 유지 및 향상이라는 중요한 사회적·정책적 의의를 갖는 과제이다(김진욱·손지윤, 2009: 1308). 현재 경상북도의 노인일자리사업의 근무환경이나 조건을 시행초기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것은 사업시행초기 노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비해 현저히 달라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노인들이 일하고자 하는 이유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회참여나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지에 따라 일자리 지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노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과성 및 서비스만족도,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과성 및 일자리사업 만족도, 일자리참여 노인의 성공적 노화간 영향관계에 있어서 도시 및 농촌지역 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결과 노인일자리 참여 즉, 생산적 활동은 성공적 노화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이 노년기 활동에 대한 활동지향적인 인식을 갖고 일자리에 참여하여, 가족관계, 경제적 및 신체적 수준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세상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게 되면 성공적 노화의 경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효과는 상당부분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하여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 및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효과성 및 성공적 노화 제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의 경우 전문성, 책임성, 적절성 요인이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임성 및 전문성 요인은 사회적·심리적·신체적 요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 및 성공적 노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의 증원과 더불어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경상북도 지역의 대학 등 교육기관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관심 있는 일반직 공무원도 지역대학 및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자격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부분 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전담요원의 확충과 일반직 공무원의 사회복지 전문 요원화를 위한 교육훈련방법 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로서의 책임감 등을 인식하고 수혜자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이나 불평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도시지역의 경우 통합성 요인이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 및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 내 사업 참여주체인 지자체, 수행기관, 수요처 간 협력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관련기관 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양한 사업이 수많은 수행기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상황까지 고려하여 개별 수행기관의 각 사업에 대해 일일이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역내 사업 참여주체인 지자체, 수행기관, 수요처 간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적 상황, 수행기관의 역량,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수행기관의 담당자 혹은 수요처의 관련자가 변경되어도 매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

내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 및 성공적 노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및 통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농촌지역의 경우 접근성 요인이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 및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경우 거주지가 서로 떨어져 있고 교통수단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쉽게 편리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다양한 접촉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거리적 장애, 서비스 정보 부족, 선정 절차의 까다로움 등 접근의 용이성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이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즉, 노인의 취업능력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농촌형모형(사회적관계중시형)과 도시형모형(건강증진형)으로 차별화 시켜 노인일자리사업 성과를 최적화 시키는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즉, 농촌노인의 경우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 및 지지를 증가시키는 일자리프로그램을, 도시노인의 경우 특히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강신옥. (2009).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충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신옥·모선희. (2007). 노인인력활용 프로그램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38: 140-161.
- 강인. (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 95-116.
- 강종수·김옥희. (2010).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48: 279-298.
- 강혜규 외. (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개선방안」. 보건사회연구원.
- 고재욱. (2007). 「노인고용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규영·최정민. (2007).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3): 527-547.
- 권치영·김선웅·임중철·이홍직. (2007). 일자리참여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2): 427-443.
- 김경호·김지훈. (2009). 한국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요인의 구조분석. 『한국노년학』, 29: 71-87.
- 김대빈. (2005).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배. (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211-231.
- 김미곤. (2007).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연구소.
- 김미혜. (2000). 「고령자 취업 적합 직종 선정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정책연구.
- 김미혜·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김수영.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사전교육의 효과성. 『노인복지연구』, 43: 331-351.
- 김순양·박병일·고수정. (2003).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수혜자 만족도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3(2): 1-20.
- 김준환. (2010). 노인일자리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 20: 147-194.
- 김진옥·손지윤.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와 참여지속의사에 관한 연구: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4): 1295-1311.
- 김진희. (2007). 「한국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운영기준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식 외. (2009).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양서원.
- 남기민. (2011). 사회적 노화이론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3(1): 35-36.
- 남기철·이문국·조성은·강성추·조준행. (2008).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발전전략」.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 박경란·이영숙. (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박경일. (2009). 『사회복지정책론』. 경기: 공동체.
- 박경하·이현미. (2011). 『201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박병일. (200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양숙. (2012).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활동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호. (2001).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방태원. (2009).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정보화 교육의 효과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방하남 외. (2005). 『인구 노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 서재호. (2008).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1): 139-164.
- 윤형준. (2010).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인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규환·이용돈. (2008).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4): 147-170.
- 이석원. (201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시간활용 변화와 적극적 노년생활. 『노인복지연구』, 49: 51-80.
- 이석원·임재영. (2007). 노인일자리사업의 연차별 의료비 절감효과. 『한국행정학보』, 41(4): 387-413.
- 이소정·정경희·이윤경·유삼현. (2007).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인재. (2005). 『노인일자리마련사업 추진체계 및 조직발전방안』. 보건복지부.
- 이정순. (2010).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 (2009).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태교. (2005).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전달체계 효과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숙. (2008).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재영·이석원. (2008). 노인일자리사업의 의료비 절감효과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4(1): 75-102.
- 장동일. (2006).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학문사.
- 전혜정. (2007). 한국노인의 사회적 지원제공과 정신건강: 종단적 자료분석. 『한국노년학』, 24(4):

- 89-105.
- 지은구. (2009). 노인일자리사업 정착을 위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사회과학논총』, 28(1): 357-410.
- 지은숙. (2011).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의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성일·손기영·서해정·정미화. (2009).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
- 통계청. (2012). 『한국의 사회지표』.
- 하춘광. (2003).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0). 『2010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실태조사』.
- 홍현방. (2005). 생산적 활동 수준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9: 203-235.
- Anderson, J. E. (2000). *Public Policy-Mak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Baltes, P. B. & M. M. Blates. (1993). *Successful Aging-Perspective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ker, R. L. (1995). *The Social Work Dictionary*. Washington, D.C.: NASW Press.
- Blau, J. (2004). *The Dynamics of Social Welfare Policy*. N.Y.: Oxford Univ. Press.
- Chen, C. (2001). Aging and Life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54(1): 57-82.
- Fisher, B. J. & Specht, D. K. (1999). Successful Aging and Creativity in Later Life. *Journal of Aging Studies*. 13(4): 457-472.
- Friedlander, W. A. & R. Z. Apte. (1980).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N.J.: Prentice-Hall.
- Gates, B. L. (1980). *Social Program Administration: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Policy*. N.J.: Prentice-Hall.
- Gilbert, N. & P. Terrell, (2002).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5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Johnson, L. C. & S. J. Yanca. (2001). *Social Work Practice: A Generalist Approach*. Boston: Allyn and Bacon.
- Jones, P. K. (2000). Sustained Personal Autonomy: A Measure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Aging & Health*. 12(4): 470-489.
- Katharine, A. & S. Houseman. (2008). *Removing Barriers to Work for Older Americans*. W. 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Klumb, P. (2004). Benefits from Productive and Consumptive Activities: Results from the Berlin Aging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67: 107-127.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08). *Employment Measures for Older People in Japan*.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Japan.
- Morgan, L. & Kunkel, S. (2001). *Aging: The Social Context(2nd ed.)*. C.A.: Academic Press.
- Rowe, J. W. & R. L. Kahn. (1998). *Successful Aging*. N.Y.: Pantheon Books.
- Torres, S. (2002). Relational Values and Ideas Regarding Successful Aging.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3(3): 417-432.

이 지 영: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논문: 정부 노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2013), 현재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이론, 정책분석·평가, 복지정책 분야이며,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고객지향적 관점에서 본 지역축제 성공요인 분석”(2013), “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2012),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성과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2011), “융호연합 모형(ACF)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2009) 등이 있다(lovelli02@ynu.ac.kr).

성 도 경: 미국 Templ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Evolution of Computerization of American County Government, 1994),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이론, 계량분석, 공기업분야이며, 논문과 저서로는 「알기쉬운 통계기법의 활용」(2011),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2010),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평가를 위한 종합적 모형개발”(2009) 등이 있다(dksung@ynu.ac.kr).